

< 要 約 >

I. 論議 背景

- (論議 背景) 올해 들어 한보, 진로, 기아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음
 - 과거와 같은 내실 없는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는 경쟁의 심화, 개방화와 같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
 -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내실 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
- (企業 價値 評價 方法의 意義)
 - (기업 가치 극대화의 중요성) 기업 가치의 극대화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킴
 -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의 의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 장부상의 손익 개념에서 부가가치 개념으로 전환한 EVA와 같은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II. 經濟的 附加價値法과 市場 附加價値法의 意義

- (經濟的 附加價値法의 意義) 경제적 부가가치법은 기업의 가치를 세후 영업이익에서 주주 및 일반 투자가(자본 제공자)의 기대 수익률인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파악하는 방법임
- (市場 附加價値法의 意義) 시장 부가가치법은 자본 제공자가 시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의 시장 가치에서 자본 제공자의 실제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임

Ⅲ. 活用 方案 및 適用 事例

- (經濟的 附加價値法의 活用 方案)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업적 평가에 이용함
- (市場 附加價値法의 活用 方案) 시장 부가가치법(MVA)은 EVA와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업이 투자가의 투자 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줌
- (經濟的 附加價値法의 適用 事例) 미국에서 최근 EVA를 경영 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Coca-Cola, Quaker Oats, Eli Lilly 등 300社에 이르고 있음

Ⅳ. 向後 展望 및 示唆點

- (向後 展望) 경제적 부가가치법인 EVA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모델로 채택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 경영의 평가 및 주식 시장에서의 그 유용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示唆點) EVA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쳤던 국내 기업에게 내실 경영을 다질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임

I. 論議 背景

- (論議 背景) 올해 들어 한보, 진로, 기아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음
 - 과거와 같은 내실 없는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는 경쟁의 심화, 개방화와 같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
 -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내실 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
- (企業 價値 評價 方法의 意義)
 - (기업 가치 극대화의 중요성) 기업 가치의 극대화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킴
 -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의 의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 장부상의 손익 개념에서 부가가치 개념으로 전환한 EVA와 같은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 論議 背景

과거와 같은 내
실 없는 성장 위
주의 전략으로는
경쟁의 심화, 개
방화와 같은 경
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

- 올해 들어 한보, 진로, 기아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음
 - 과거와 같은 내실 없는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는 경쟁의 심화, 개방화와 같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
 -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내실 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

○ 企業 價値 評價 方法의 意義

- (기업 가치 극대화의 중요성) 기업 가치의 극대화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킴
 - 기업 가치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주주 및 일반 투자자와의 관계(Investor Relations:IR)를 향상시켜 기업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EVA와 같은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은 투자 수익률을 기회 비용과 연결함으로써 부가가치 개념으로 전환한 평가 방법임

- 주주 및 일반 투자자와의 관계 개선은 기업 소유주(Owner 또는 株主)와 경영자간의 이해 관계 상충에서 발생하는 감시 비용인 대리 비용(Agency Cost)를 낮추게 해주며, 이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킴
-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의 의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 즉 가치 극대화라는 전략 목표를 피드백(Feed-back)해주며, 피드백한 결과를 목표에 반영시켜 전략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시키도록 하는 평가 방법이 필요함
 - 과거의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의 경우는 주로 회계 장부상에서 순이익을 기초로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함
 - 기업의 가치를 회계 장부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보다는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함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부가가치 활동 및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음
- EVA와 같은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은 투자 수익률을 기회비용과 연결함으로써 기업 가치 평가를 기존의 회계 장부상의 손익 개념에서 부가가치 개념으로 전환한 평가 방법임
 - EVA를 도입하게 되면 경영 활동의 부가가치와 투자 자본의 기회 비용을 측정하기 때문에 경영 활동의 성장성과 효율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음

II. 經濟的 附加價值法과 市場 附加價值法의 意義

- (經濟的 附加價值法의 意義) 경제적 부가가치법은 기업의 가치를 세후 영업이익에서 주주 및 일반 투자자(자본 제공자)의 기대 수익률인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파악하는 방법임
- (市場 附加價值法의 意義) 시장 부가가치법은 자본 제공자가 시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의 시장 가치에서 자본 제공자의 실제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임

○ 經濟的 附加價值法(Economic Value Added: EVA)의 意義

경제적 부가가치법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본래의 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가치 증가분으로 측정하는 방법임

- 경제적 부가가치법(Economic Value Added : EVA)은 기업의 가치를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의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파악하는 방법임
 - 즉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본래의 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가치 증가분을 측정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중시되고 있으나, 이는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만을 반영하여 산정된 손익으로 자기자본의 사용에 따른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반해 EVA는 투자자본의 기회비용적 성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의 산출식
 - $EVA = \text{세후 영업이익} - \text{자본비용}$
 - = 세후 영업이익 - (타인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용)
 - = 세후 영업이익 - {투자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세후 영업이익
 - = 영업관련 수익 - 영업관련 비용 - 법인세
 - ㉠ 영업관련 비용: 대손상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은 비용에서 차감함
- 투자자본
 - = 순영업용운전자산 + 순투자자산 + 순고정자산 + 순이연자산 - 무금리유동부채
 - ㉡ 순영업용운전자산
 - = 유동자산 - 현금 - 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 자기사채
 - ㉢ 순투자자산
 - = 투자자산 - 관계회사주식 - 특정현금과예금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보관유가증권
 - ㉣ 순고정자산
 - = 유형고정자산 - 감가상각충당금 - 건설가계정 - 미착시설
 - *토지계정중 비영업용 토지는 유형고정자산에서 빼고 계산함
 - *감가상각충당금은 감채기금법으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나 그렇지못할 경우 정액법으로 소급 적용하여 계산함
 - ㉤ 순이연자산
 - = 이연자산 - 신주발행차금 - 사채할인발행차금
 - ㉥ 무금리유동부채
 - = 유동부채 - 당좌차월 - 단기차입금 - 외화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타인자본의 실효금리와 자기 자본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으로 구함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text{실효금리} \times (1 - \text{법인세율}) \times \frac{\text{타인자본}}{(\text{타인자본} + \text{자기자본})} \\ + \text{자기자본기대수익률} \times \frac{\text{자기자본}}{(\text{타인자본} + \text{자기자본})}$$

㉠ 실효금리는 순지급이자분을 타인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함

*순지급이자

$$= \text{지급이자와할인료} + \text{건설가계정 금융비용} \\ + \text{지급수수료} + \text{사채발행비} - \text{꺾기관련 수입이자}$$

*타인자본 산출시 꺾기관련 시채는 타인자본에서 차감하고, 운용리스는 운용자산과 타인자본에 합산함

*전환사채에서 전환권 조정을 차감한 부분을 타인자본에 합산함

*타인자본

$$= \text{총금리부부채} + \text{순전환분} - \text{초과시채}$$

..총금리부부채

$$= \text{당좌차월} + \text{단기차입금} + \text{외화단기차입금} \\ + \text{유동성장기부채} + \text{사채} - \text{사채할인발행차금} \\ + \text{장기차입금} + \text{외화장기차입금}$$

..순전환분

$$= \text{전환사채} - \text{전환권 조정계정}$$

※전환권 조정계정은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할 경우 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초과시채

$$= \text{현금과예금} + \text{특정현금과예금} + \text{퇴직보험예치금}$$

㉡ 자기자본기대수익률 산출에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주식가격 평가 모형, 주당 수익률 (EPS: Earning Per Shar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자기자본 산출시 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를 합산함

*자기자본

$$= \text{자본금} + \text{자본잉여금} + \text{결손금} + \text{전환권대가}$$

- 위의 식을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상에서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산출할 수 있음

· 아래는 1993년 S社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EVA를 산출한 예임

· S社의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계정과목	1993
매출액	1,691
매출원가	1,35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49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4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	-
대손상각	0
지급수수료	28
연구개발비	8
기타	109
영업이익	190
영업외수익	97
수입이자와할인료	70
기타	27
영업외비용	261
지급이자와 할인료	133
사채이자	98
기타	30
경상이익	26
특별이익	261
특별손실	37
법인세	42
당기순이익	208
주당순이익(단위: 원)	3,316

*(출처: 한국신용정보 자료 재인용)

· S社의 대차대조표

(단위: 억 원)

계정과목	1993
유동자산	1,395
현금과 예금	188
유가증권	34
자기사채	-
기타	1,173
투자과 기타자산	960
투자자산	736
관계회사주식	599
특정 현금과 예금	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61
기타투자자산	76
기타자산	224
유형고정자산	1,248
토지	211
건설가계정	81
미착시설	12
기타	944
이연자산	12
신주발행비	0
사채발행비	4
기타	8
자산총계	3,615
유동부채	1,392
당좌차월	87
단기차입금	503
유동성 장기 부채	409
기타	393
고정부채	999
사채	480
전환사채	231
장기차입금	136
기타	152
부채총계	2,391
자본금	362
자본잉여금	469
이익잉여금	345
자본조정	48
결손금	0
자본총계	1,224
부채와 자본총계	3,615

*(출처: 한국신용정보 자료 재인용)

· S社의 經濟적 부가가치(EVA)

(단위: 억 원)

항목	1993
매출액	1,691
매출원가	1,352
영업 비용	149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4
(단체퇴직금급여충당금전입)	-
(대손상각)	0
영업수익	194
법인세	58
세후 영업이익	136
투자자본	2,805
순영업용유동자산	1,173
순투자자산	76
순고정자산	1,155
순이연자산	8
무금리 유동부채	393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3%
투자자본×WACC	365
경제적 부가가치(EVA)	-229

①S社의 EVA 산출시 적용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다음과 같음

*실효금리 = $(133+98+28-70)/1,597 = 12\%$

*법인세율 = 30%

*타인자본 = $(87+503+409+480+136) + 231 - (188+0+61) = 1,597$ 억 원

타인자본 계산시 연말까지의 적수 개념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대차대조표상의 수치로 계산함

*자기자본기대수익률은 CAPM 모형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베타계수의 安定性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리스크 프리미엄의 측정 결과도 유의적이지 못하여 CAPM의 적용 자체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이때 주가는 93년 S社의 최고, 최저의 평균으로 구함

$$\begin{aligned} & \text{자기자본기대수익률} \\ & \text{EPS} \quad 3,316 \\ & = \frac{\quad}{\text{주가} \quad 15,500} = \frac{\quad}{\quad} = 21\% \end{aligned}$$

*자기자본= 362+469 = 731억 원

$$\begin{aligned} \text{㉠S社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 = 0.12 \times (1-0.3) + 1,597/(1,597+731) \\ & \quad + 0.21 \times 731/(1,597+731) \\ & = 13\% \end{aligned}$$

- 위에서 예시한 S社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에서는 특별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 2백 8억 원을 기록했으나 EVA로는 '-' 수치인 1백 7억 원이 나타남
 - 이는 EVA가 일반인들에게 공표되는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서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를 공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
 - 즉 S社는 EVA가 '-' 수치가 나타남으로써 투자자본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부가가치 활동이 투자자본보다 낮음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냄

○ 시장 부가가치법(Market Value Added: MVA)

- 시장 부가가치법은 투자 자금의 시장 가치에서 자본 제공자의 실제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임.
 - 시장 부가가치법 = 주식과 부채의 시장 가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부채 - R&D 비용
 - 시장 부가가치가 '+'가 나오면 기업의 가치가 자본 제공자의 투자액을 상회함을 보여줌
 - 이는 기업 가치가 투자액을 상회할 만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함

- 시장 부가가치법은 자본 제공자 입장에서 기업이 자신의 투자액을 상회했을 만큼 기업 가치를 증가시켰는 지의 여부를 '+', '-' 여부에 따라 파악함
- 시장 부가가치법의 경우 주식과 부채의 시장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장래 성장성을 비관적으로 볼 경우 EVA의 증가와 무관하게 시장 부가가치(MVA)가 '-'가 나오는 경우도 가능함
- 아래는 EVA 산출시 사용한 S社의 재무제표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 부가가치법을 산출한 것임
- S社의 시장 부가가치(MVA) 산출 예

(단위: 억 원)

항목	1993
주식의 시장가치	971
부채의 시장가치	1,102
소계	2,073
자본금	362
자본잉여금	469
부채	1,597
R&D 비용	- 8
소계	2,420
시장 부가가치	-347

- ㉠ S社 주식의 시장가치
= 발행주식수 × 93년도 최저와 최고 주가의 단순 평균
- ㉡ 부채의 시장가치 = 타인자본(1,597억 원)을 S社 가중평균 자본비용 13%로(기간은 3년, 할인율 0.69로 가정) 할인함

- 위의 S社의 경우 MVA가 '-' 수치를 기록하여 기업 가치가 자본 제공자들의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S社는 당기순이익은 2백 8억 원을 기록했으나 MVA로는 '-' 수치가 나와 93년 동안 기업의 시장 가치를 증진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음

III. 活用 方案 및 適用 事例

- (經濟的 附加價値法의 活用 方案)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업적 평가에 이용함
- (市場 附加價値法의 活用 方案) 시장 부가가치법(MVA)은 EVA와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업이 투자가의 투자 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줌
- (經濟的 附加價値法의 適用 事例) 미국에서 최근 EVA를 경영 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Coca-Cola, Quaker Oats, Eli Lilly 등 300社에 이르고 있음

○ 經濟的 附加價値法(EVA)의 活用 方案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업적 평가에 이용할 수 있음

-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 업적 평가에 이용할 수 있음
- EVA는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음. EVA의 증가는 부가가치 증가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의 증가 여부를 측정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이용함
 - 예를 들어 어떤 투자안에서 투자 기간동안의 EVA가 플러스(+)라면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이 투자안을 수용함
- EVA는 업적 평가에 이용할 수 있음. EVA는 이익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유용한 업적 평가 방법임
 - 예를 들어 양적 측면의 업적 평가시 이익액만을 업적 평가 기준으로 하면 그 이익액이 자본 제공자의 기대를 상회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없음
 - 질적 측면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양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평가 방법이 될 것임

- EVA를 업적 평가에 이용하면 영업 이익(양적 측면)과 초과 수익률(투자자본이익율에서 가중평균자본비용률 차감: 질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용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음

○ 市場 附加價值法(MVA)의 活用 方案

기업이 투자가의 투자 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음

- 시장 부가가치법(MVA)은 EVA와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업이 투자가의 투자 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줌
 - 따라서 기존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 자본이익율(Return On Equity; ROE)와 함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 보다 유효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經濟的 附加價值法(EVA)의 適用 事例

미국에서 최근 EVA를 경영 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Coca-Cola, Eli Lilly, Quaker Oats 등 300사에 이르고 있음

- 미국에서 최근 EVA를 경영 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Coca-Cola, Quaker Oats, Eli Lilly 등 300社에 이르고 있음.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일반 기업에서 공익 회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종의 기업들이 EVA를 도입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도 국제화 환경에서 기업 생존의 전략으로 EVA를 도입하고 있음
 - Bankers Trust Security와 같은 유명한 증권 회사들도 EVA를 이용하여 투자 대상 기업을 분석함으로써 높은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Coca-Cola社는 1980년대에 들어 라이벌인 Pepsi社와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의 저하 등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경영 관리 기법인 EVA를 198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Coca-Cola社는 EVA를 전사적 레벨, 사업부 레벨, 개인 레벨에서 목표 설정의 동인(Driver)으로 이용하고 있음
 - 同 社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프로젝트에의 집중 투자 및 저수익 사업 부문에서의 철수와 같은 자본비용 축소 전략에 이용함. 이를 위해 파스타(Pasta), 인스턴트 커피와 같은 자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거대한 이익이 남는 청량 음료 사업에 집중함. 이에 따라 청량 음료 사업부문의 수익률이 29.4%로 상승함
 - EVA를 이용하여 영업 이익율의 개선, 집중 구매에 의한 경비 절감 및 운전 자본의 삭감과 같은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균 자본 비용을 16%에서 12%로 낮추고, 52개 생산 부문을 40개로 축소하여 집중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함
 - EVA 도입의 결과 Coca-Cola社의 EVA는 1987년의 490 달러에서 1995년에는 2,172 달러로 상승하였고, 주가도 同 기간 동안 9.53 달러에서 74.25 달러로 상승함.
- 식품 회사인 Quaker Oats社는 EVA를 도입하기 전까지 분기별 이익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함. 이에 따라 분기말에는 항상 생산 및 판매가 집중되어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원료 및 제품의 보관, 운송 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옴
- 同 社는 제품 공급의 불연속성 및 재고 누적에 따른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해 EVA 방식을 도입하여 각 공정 및 사업 단위별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함

- EVA 방식의 도입에 따라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재고는 감소(1,500만 달러→ 900만 달러)하였고, 동시에 보관 창고는 축소(15개→ 10개)되어 임금과 자본비용에서 연간 6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음. 그 결과 주가도 30%가량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제약 회사인 Eli Lilly는 1994년 6월부터 EVA를 경영자 및 사업 부문의 목표 및 성과 측정에 도입함
 - 同 社는 현재 350개의 사업 부문에 도입하고 있는 EVA를 1997년말까지 1,400개의 부문에 확대할 전망이다
 - EVA 도입에 따라 同 社의 주가는 1994년에 비해 현재까지 105% 상승함

IV. 向後 展望 및 示唆點

- (向後 展望) 경제적 부가가치법인 EVA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모델로 채택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 경영의 평가 및 주식 시장에서의 그 유용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示唆點) EVA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쳤던 국내 기업에게 내실 경영을 다질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임

○ 向後 展望

EVA와 같은 유용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 존재하게 되면 기업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가이드 라인이 됨

- 경제적 부가가치법인 EVA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 경영의 평가 및 주식 시장에서의 그 유용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EVA와 같은 유용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 존재하게 되면 기업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가이드 라인이 됨

○ 示唆點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 활동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주주의 부를 중시하는 EVA와 같은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과거 성장 위주 정책으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국내 기업들도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함
- EVA와 같은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을 위와 같은 전략의 달성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EVA는 기업의 가치를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영업외손익, 특별손익 항목의 포함) 당기 순이익 중심에서 기업 본연의 업무인 영업의 부가가치 활동을 중시하도록함

- 또한 과거에는 기회비용적 측면에서만 생각했던 자기자본비용을 타인자본비용과 동일시하여 명시화으로써 과거의 평가 방법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함
 - 이러한 EVA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쳤던 국내 기업에게 내실 경영을 다질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임
-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 활동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에서도 EVA와 같은 현금 흐름 및 수익성 향상과 주주의 부를 중시하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적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국내 기업들도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업가치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함

(김대홍; dhkim@cosmo.co.kr)